



FLOW

<Flow> is resurrection, rebellion, the sudden mirror of our mass consumption society that kills human beings and the objects it mass-produces. The windscreens surge up like the wave that engulfs towns in catastrophe films such as 2012 or The Day After Tomorrow. They are broken, discarded, ignored objects that take the place by storm, rebel and attack us. <Flow> is nothing other than the formalization of our gradual engulfment in consumption in which neither human beings nor - even less - objects are respected. There is no preacquired resilience on the pretext that windscreen protects from shattering. There is resilience only for the woman journalist who though frightened still 이 작품이 암시하는 우리가 죽게 될 원인은 오브제와 제조업,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다. believes it possible to think she has been preserved in an ocean of accidents. Or is it in fact to reassure the future visitor about a trauma he or she will not have to experience? With <Flow> it is objects, manufacture, and even global warming which this work alludes to - we will die from. With Baptiste, the physical always takes a knock. The very shock he causes us to experience is for each of us a door open to a conceivable and possible resilience. The artist opens the door as Moses divided the sea. But unlike him, he never points the way. Text by Antoine Melchior

(흐름)은 인류와 인류가 생산한 오브제들을 위협하는 대량소비사회의 부활이요, 반역이자, 그 사회를 불현듯 비춰내는 거울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깨진 자동차 앞유리는 재난영화인 '2012'나 '투모로우'와 같이 도시를 삼키는 파도처럼 솟아올라 방문객을 압도한다. 〈흐름〉은 사람들이 소비에 점차 휩싸여가면서 인간과 오브제 모두 존중받지 못하는 추세를 표현하고 있다. 차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탄성을 체험적으로 습득한 건 아니다. 탄성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는 수많은 사고 속에서 자신의 몸은 보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한다. 이것은 방문객에게 그들이 경험할 필요가 없을 트라우마에 대해 안심을 주려는 것일까? 〈흐름〉의 경우, 밥티스트는 언제나 물리적인 것에 타격을 가한다. 그가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그 충격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물질이 가진 탄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작가는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작품을 전시했지만, 모세와는 달리 그 길의 방향을 결코 지시하지는 않는다. 글: 안토니 멜키오르









Justice & Prudence, 2012

TURBO

The turbo wave of the 80's left its mark on the industry and on the whole cultural 80년대 자동차 터보의 유행은 서유럽의 산업과 전체적인 문화에 강한 흔적을 남겼다. situation in Western Europe. Since having a turbo in your own car was giving you 터보는 다른 평범한 자동차보다 우월한 느낌을 주고, 운전자 자신이 타인보다 더 뛰어남을 this feeling of superiority among other common cars. It was meaning you were more 과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터보의 소리 효과는 진정 물리적인 힘을 강하게 powerful than them. The sound effect gives the sensation of a real physical power. 표현한다. 작가의 설치작업 〈터보〉는 이러한 남성호르몬적인 경쟁을 다루면서 남성의 The installation <Turbo> is actually dealing with this testosterone competition, and 힘을 표현하고 있다. is putting in jeopardy this representation of the masculine power.

JUSTICE & PRUDENCE

<Justice & Prudence> at the Lieu, Centre d'Art Actuel in Quebec is the final part of a trilogy which started with 'Agony In The Garden' at the Galerie Krupic Kersting in Cologne, followed by 'Massacre Innocent' at the Galerie Patricia Dorfmann in Paris. The thematic focus of these exhibitions concentrates on the way in which the model of society, be it a religious, political or economic model, is represented. In this part, the spectator is tantalized by a huge display of work, plunged into a spiritual dimension from which strange feelings emanate. The orchestration seems violent and methodical: televisions brutally impaled on improvised gallows, exploded screens on the ground surrounded by their shattered remains, while other whole ones await their sentence. The artist here underlines the spectral nature of a logic of vengeance confronting a logic of justice. Text by Aurelia Bey-de la H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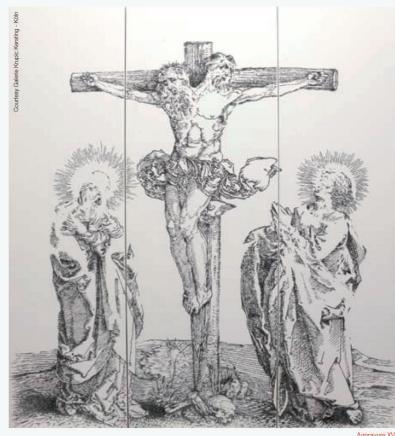
정의와 분별

퀘벡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정의와 분별〉 전시는 쾰른 크루픽 케르스팅 갤러리에서의 '정원에서의 고뇌'로 시작하여 파리 파트리샤 도르프만 갤러리에서의 '무고한 학살'로 이어진 3부작의 마지막 전시다. 이 전시는 종교적 모델이든, 정치적 모델이든, 경제적 모델이든 간에 사회를 재현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장의 관객은 작품의 파격적인 전시 방식에 압도되어 영적인 차원으로 빠져들고, 낯선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 생각은 폭력적이고도 질서 있게 통합되는데, 텔레비전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교수대에 잔인하게 꿰찔러져 있고, 폭파된 스크린은 바닥 위에 산산조각이 난 잔해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른 모든 오브제들은 각자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 통찰력 있는 정교화가 특기인 밥티스트는 여기서 정의의 논리에 맞선 복수 논리의 오싹한 성격을 강조했다. 글: 오렐리아 베이-드라 헤라









AGGRAVURE

The protagonist learus, the Mannerism of the Renaissance and the symbol of sublime 주인공 이카루스와 르네상스의 매너리즘, 권력을 나타내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 power Air Force One (the official plane of the President of the USA) are the main points in this work. The combination of pathos, beauty and unnatural movement of 매너리즘의 결합은 일종의 공격성을 감추고 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수많은 스테이플 심은 Italian Mannerists, is concealing some kind of aggression. Here tackers are used as 현대의 공격성과 일상생활의 세속적인 유용성을 표현하는 재료이자 매체로써 활용됐다. a material and a media, which are playing with the contemporary agression and the 작가는 규모나 형태, 혹은 맥락을 '악화' 시킨 몇몇 이미지를 스테이플 심을 이용하여 profane utility of the everyday life. Debombourg use some images by 'worsening' the 건축적인 설치작업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회화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스테이플 심과 scale, the form or the context to produce an installation in the architecture by means 공명하는 붕괴이다. 편집: 박민선기자 of staples. The recurring theme in these paintings revolves around the collapse that resonates with staples. Editor: Park Minsun

Baptiste Debombourg: Born 1978, Baptiste Debombourg lives and works in Paris. Much **밥티스트 드봄부르**: 1978년 태생의 밥티스트 드봄부르는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한다. 그의 of his work begins with the destruction of discarded packaging, furniture or laminated glass. 대다수 작업은 버려진 포장재나 가구, 적층 유리를 파괴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조각가로서 밥티스트는 His practice as a sculptor then revolves around the reassembly of these elements into original 여러 종류의 자재를 하나의 독창적인 오브제로 재조합하는 것에 중심을 두며, 깨지고, 찢어지고, 해체된 objects and environments. Broken, torn and dismantled, the value of the medium - which has little importance in the artist's eyes - is reinstated through radical and visually striking works 때로는 폭력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이러한 조각 작품들은 장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공간과 그 속에서 that reinvent our everyday lives with irony, detachment and sometimes violence. The sculpted 우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며,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works question our memory of place, alter our perception of space and how we evolve within 미치는지를 드러낸다. 밥티스트 드봄부르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실험과 프로젝트에 개입시키는 '실험실 it, and reveal how our environment insidiously conditions our behavior and experience. Baptiste 연구원'으로 묘사한다. 그의 예술은 다양한 행위를 통해 정밀함과 풍부함, 일시성과 불변성, 사소함과 Debombourg describes himself as a 'laboratory researcher', constantly engaged in experiments 중요함을 융화시킨다. and projects. Through multiple gestures, his art reconciles precision and profusion, ephemeral and immutable, triviality and significance.

아그라뷰르

포스 원이 이 작품의 주요 포인트다. 정념과 아름다움,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이탈리아

물건을 급진적이고도 시각적으로 강렬한 작품들로 복원하여 일상생활을 아이러니화시키고, 파편화하며,